

Criticisms Expectations to the Regional Library Association's Present Activities

地區協議會 · 部會 · 協議會

活動에 대한 期待論

張一世
本會 專門委員長

一. 部會 및 地區協議會의 性格

部會 및 地區協議會의 性格은 각기 兩會의 규약 준칙에 명시되어 있다. 즉, 部會의 目的是 部會 會員 상호간의 제휴하에 당면문제의 협의와 調查, 研究를 통하여 도서관 發展에 기여 함이라고 4條에서 규정하였으며, 地區協議會의 目的是 역시 동 규약 준칙 4條에서 “市, 道 地區의 公共도서관, 大學도서관, 학교도서관, 特수도서관 기타 도서관시설의 상호 제휴하에 도서관사업의 發展을 도모함으로써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에 기여”함이라 하였다.

이 두가지의 目的을 比較하여 要約해 보면 地區協議會는 그 地域社會의 圖書館發展과 文化向上을, 한편 部會는 당면문제의 協議와 調查研究로서 도서관 發展을 目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兩會는 서로 性格이 뚜렷이 다르다. 따라서 兩會의 活動에 대한 意見도 따로 살펴보기로 한다.

二. 部會活動狀況 분석

1. 部會의 특징

部會는 地區協議會와 비교할 때 한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은 같은 性格의 圖書館이 모여서 部會를 이루었다는 점이다.

本 特집號에 게재된 部會만 보더라도 公共圖書館部會, 醫學圖書館協議會 그리고 學校圖書館部會의 3部會이다. 이 밖에, 명칭은 協議會이나 部會의 性格을 가진 것으로서 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가 있으므로 결국 部會는 4個部會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4個部會中에서 全國的인 규모의 部會는 公共圖書館部會, 醫學圖書館協議會 및 學校圖書館部會로서, 私立大學圖書館協議會는 私立大學만으로서 조직되었으므로 全國的인 조직체로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性格의 도서관이 모인 組織體이므로 地區協議會와는 달리 모든 事業目標가 동일하고 研究關係가 일치하므로 사업의 추진이 비교적 容易한 것이 특징이다.

2. 活動內容

部會로서 조직된 역사가 짧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의 애로로 인하여 아직 뚜렷한 成果를 올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한 成果는 醫學圖書館協議會에서의 醫學關係雜誌 綜合目錄 發刊이다.

위에서 잠깐 言及한 바이지만 部會의 특징이 같은 性格의 도서관 집합체이므로 이와 같은 成果를 올릴 수 있다.

즉, 上記한 綜合目錄을 편찬함으로써 部會를 이루는 모든 會員圖書館이 다 같이 惠澤을 받을 수 있다. 역시 同部會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相互貸借制度도 綜合目錄과 같이 모든 會員이 도움을 받음으로 활발하게 진행 될 수 있다.

部會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다. 部會의 모든 事業이 모든 會員에게 다같은 惠澤을 끌고루 준다는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部會는, 그 部會에서 선정하는 事業의 性格에 따라 급속히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로 인하여 한층 더 結束될 수도 있게 된다.

어느 部會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사업의 하나가 部會 구성원을 위한 세미나 開催이다. 이 세미나 개최는 共同目的을 향하여 나아가는 同種의 도서관원을 위한 것이므로 새로운 지식의 소개 資質의向上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사업의 하나이다.

公共圖書館部會나 醫學圖書館協議會에서는 거의 정기적으로 이러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어서 상당한 效果를 얻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部會의 지금까지의 活動內容으로서는 上記한 몇가지로 集約할 수 있는데, 총괄적으로 이야기 하여서 活

澈한活動이라고는 평하기 어렵다.

筆者와 그와 같은結論은, 아직 部會의 짧은 역사와 경험의 부족, 그리고 專門職司書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기는 하지만, 그 보다도 더 큰理由는 도서관에 대한 認識不足이다.

3. 앞으로의 方向

앞으로 各部會가 어떠한 方向으로 가야 할 것인가는 各部會 스스로가 決定할 문제이거니와 客觀的으로 살펴 볼 때 한두가지의 바람직한 方向을 提示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같은 性格의 圖書館이 모인 것이 部會이므로, 각기 部會가 하여야 할 일, 解決하여야 할 일은 사실상 너무나 많다고 할 것이다.

例를 公共圖書館部會에서 보면 公共圖書館部會가 바라고 있는 일,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일이 참으로 허다하다.

다른 部會 보다도 가장 약한 部會가 公共도서관部會이므로 그만큼 많은 難題를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筆者の 見解로는, 公共圖書館에 근무하는 專門職司書의 確保문제와 公共圖書館長의 資質문제이다.

물론 어느 館種이건간에 우수한 專門職司書의 확보가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公共圖書館만큼 이 문제가 침각한 데가 없는 것으로 筆者は 알고 있다.

毎年 봄, 가을 두차례에 걸친 公共圖書館 세미나에 나아가 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다음 세미나에는 전년 세미나때에 보지 못하던 館長이나 직원이 거의 3분의 1은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새로 열줄을 나타내는 사람들중에서 專門職司書를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상례이다. 비전문적 공공도서관 직원의 빈번한 교체가 공공도서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비전문적이라 할지라도 몇년 동안 계속 있을 수 있다면 그나마 세미나나든가 또는 司書講習 등에 의하여 차차로 도서관 직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나친 교체로 말미암아 도서관 봉사업무를 전연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어떻게 部會活動을 바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세미나나든지 또는 部會의 총회 등은 하나의 격식화한 모임에 불과한 것이고, 이로 인한 실제적인 아무런 발전이나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非專門職들, 그리고 公共圖書館의 概念 조차 모르는 분들에게 公共圖書館의 發展을 기대하는 일 부터가 잘못이고, 또 非專門職이 위에서 지적한 部會目的 달성을 위하여 어떤 成果있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도 무리한 일이다.

따라서 公共圖書館部會에 있어서는 이러한 部會活動

에 앞서서 公共圖書館에 관련된 根本問題 解決이先行되어야 한다. 즉, 公共圖書館에 대한 지도體系가 一元化되어야 하고, 公共도서관에서 專門職司書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없이는 公共圖書館 또는 公共圖書館部會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發展이나 向上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同部會에서의 바람직한 사업내용도 言及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公共圖書館部會의 이러한 상태와는 달리 醫學圖書館協議會나 學校圖書館部會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상당한 發展과 기대를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理由는 각기 上記 部會의 구성회원에는 상당한 수의 專門職司書들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全國的인 규모로 部會조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大學圖書館도 앞으로 部會가 전국적인 규모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것은 醫學圖書館에 뜻지 않게 大學圖書館에는 專門職司書가 많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는 두군데에서 協調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하나는 서울大學 中央圖書館이 주동되고 있는 全國 國立大學 圖書館長會議이고, 또 하나는 얼마전에 結成된 私立大學 圖書館協議會이다.

이 두組織體등이 中心이되어 全體를 網羅한 大學圖書館部會가 하루 속히組織됨으로써 全體大學圖書館發展을 보다 效果的으로 圖謀할 수 있을 것이다.

醫學圖書館協議會가, 위에서 筆者が 지적한 바와 같이 가장 뚜렷한 成果를 올릴 수 있었다는理由가 같은目標를 위하여 國立, 私立 할 것없이 힘을 합하여 나아갔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는데, 大學圖書館도 다 같은研究圖書館이므로 國立, 私立 할 것없이 힘을 합하여 나아갈 때 큰 成果를 기대할 수 있다.

사실상 醫學圖書館 보다도 더 많은 專門職司書들과 더 풍부한豫算을 가지고 있는 곳이 大學圖書館이다. 따라서 大學圖書館의 統合된 活動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學術研究 圖書館의 統合된 活動을 뜻하는 것이며 大學圖書館의 活動은, 즉 우리나라 圖書館界를 代表한活動이 될 것이다.

해방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가장 活潑하게 움직인 곳이 大學圖書館이고, 또 가장 많은 資料를購入한 곳도 大學圖書館이지만, 상호간의 協調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國家的으로 볼 때에는 많은 損失을 가져오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綜合目錄의 頻찬과 相互貸借

大學이나 醫學圖書館協議會에서의 가장 要望되는事業은 綜合目錄編纂이다. 이미 醫學圖書館協議會에서는 醫學關係雜誌에 대한 綜合目錄은 발간하고 있지만, 雜誌 뿐만 아니라 學術圖書에 대한 綜合目錄도 頻찬되어

야 한다.

延世大, 西江大 및 梨花女大가 공동으로 學術雜誌綜合目錄을 발간하였으나, 모든 大學圖書館이 총망라되어 이러한 綜合目錄과 學術圖書 綜合目錄 편찬에 총력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綜合目錄은 무슨 圖書雜誌가 어느 圖書館에 所藏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기본적인 자료가 되므로, 이것 없이는 아무런 効果의인 사업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綜合目錄이 토대가 되어相互貸借業務가 가능하며, 한결 음 더 나아가 共同收書문제 및 共同整理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綜合目錄편찬이 學術圖書館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綜合目錄의 편찬은 大學圖書館의 責任만은 아니다. 강력한 國立中央圖書館이 全國的인 규모로 綜合目錄편찬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사실, 우리 國立中央圖書館이 1969년 이래 40餘個 圖書館의 協調를 얻어 綜合目錄 편찬을 해 오고 있으나 全國的인 규모라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좀 더 強力한 指導力を 발휘하여서 모든 學術圖書館이 이에 협조하도록 한다면 그 이상理想的인 것은 없다. 그러나 지금 실정으로 볼 때 국립중앙도서관에게 이러한 기대를 가진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하여간 綜合目錄은 편찬되어야 한다. 위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있어야相互貸借業務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相互貸借 못지 않게 綜合目錄이 중요한 理由는, 만일 綜合目錄이 있을 경우 많은 圖書購入費를 절약할 수 있는데 있다. 즉, 不必要한 도서의 重複購入을 피할 수 있다. 지금과 같은 형편에서는 어느 도서관에 어떠한 도서가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도서의 중복구입이 불가피하다. 綜合目錄이 편찬되고, 相互貸借업무가 원활할 때 많이 쓰이지 않을 도서의 구입은 상호대차에 의하여 빌려 보고, 그 도서 구입비로서 보다 폭넓은 도서 藏集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보면 종전과 꼭 같은 도서비를 가지고 더 많은 종류의 도서를 구입할 수 있게 되므로 國家의in 見地에서 볼 때 一石二鳥의 効果를 겸게 된다.

○ 共同購入과 共同整理

다음으로, 部會의 事業으로는 圖書의 共同購入이다. 도서는 한책 구입할 때와 100책 구입할 때 구입 가격에서 많은 차이를 가져온다. 가격에서도 차이가 생기지만 도서 구입업무도 많은 도서를 일시에 할 경우 한책 한책 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같은 지역안에 있는 같은 性格의 도서관이 서로 協力하여서 共同購入업무를 하고 있다.

共同購入업무가 원활하게 될 경우, 또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구입도서의 共同整理이다. 여기서 차세히 言及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지만 도서 한책을 整理하는데 따른 費用이나 時間, 人力 문제는 모든 도서관에 있어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이미 部分的으로나마 綜合目錄편찬이나 相互貸借가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共同購入과 共同整理 문제도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기는 도래한 것이다. 물론 이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따를 것이지만 시도해 보기 전에 문제점만 가지고 월가를 부할 때는 이미 지났다. 이제는 실시하는 것 뿐이다. 실시해 본 후에 어떤 문제점에 부닥쳤을 때, 우리는 그 문제점 해결에 총력을 기울이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을 것이다.

要은 協力하는 모든 도서관에 골고루 惠澤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美國의 경우를 보면 1966년 이래 國家의in 計劃에 따라 圖書購入과 整理를 하고 있다. 우리도 國家의in 計劃은 아닐지라도 部會事業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選定圖書目錄 發刊

이미 어떤 地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部會에서 하여야 할 사업의 하나가 選定圖書目錄 發刊이다.

이미 누차 言及한 바와 같이 學校圖書館部會는 學校圖書館을 위하여, 公共圖書館部會는 公共圖書館을 위하여, 조직된 部會이므로 그 部會에서 圖書의 公共구입을 위하여, 또는 개별 구입을 할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性格을 도서관을 위한 자료선정에 도움을 주는 選定圖書目錄은 매우 有用하다.

圖協에서 月報에 게재하고 있는 選定圖書目錄도 있기는 하지만, 그 目錄은 어떤 館種을 위한 선정도서목록이 아니므로 學校圖書館의 경우 그리 큰 도움은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共同利益을 위한 選定圖書目錄 발간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學校圖書館部會에 있어서는 學術圖書館部會와는 달리 綜合目錄편찬이나 또는 相互貸借가 그리 필요하지 않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이 학술연구도서관이 아니므로 무슨 圖書가 어느 도서관에 있느냐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학술도서를 소장하는 도서관도 아니므로 도서관의 상호대차도 그리 요청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共同購入이나 共同整理 문제는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것은, 구입하는 도서가 같은 종류이므로 共同購入이나 共同整理로서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特殊한 活動

이 밖에, 종전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한다던가 圖書

館報나 또는 이와 같은 性格의 會報를 發간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部會의 形態에 따라 추진할 것이지만, 우리 나라의 形態에서 볼 때 部會가 하여야 할 特有한 일로서는 部會 구성會員의 地位向上이나 待遇改善 등 部會의 發展을 위한 보다 具體的인 問題를 提示 解決할 수 있는 事業이 推進되어야 한다.

위에서 약간 言及한 바 있는 公共圖書館의 문제라든지, 學校圖書館에 있어서의 司書教師에 관련된 여려 가지 문제, 즉 司書教師의 TO문제, 司書教師의 地位문제, 司書教師의 時間문제, 待遇문제 등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허다하며, 좀 더 根本적인 문제로서는 學校圖書館의 基準문제, 圖書費문제 등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이 가로 놓여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學校圖書館만이 가지는 문제점으로서 公共도서관이나 大學도서관에서는 그들이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따로 있으므로 사실상 심각한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문제는 學校圖書館部會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들이다.

理想的으로는 그러한 문제들이 部會에서 문제시되기 전에 當局에 의하여 적절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希望은 希望에서 끝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책이 우리로서는 세워져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 部會의 積極적인 活動이 必要한 것이다.

○ 部會組織의 勸獎

아직 까지 部會로서는 公共圖書館部會 學校圖書館部會 및 醫學圖書館協議會의 세 館種에 지나지 않은데,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比較的 活潑하게, 그리고 能率的으로 움직이고 있는 部會는 醫學圖書館協議會이다.

이 醫學圖書館協議會는 비록 수는 적다하더라도 目的하는 바範圍가 뚜렷하고, 서로 협력함으로써 서로 도움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醫學關係 이외의 分野, 예를 들면 法律學이라든지 또는 農學이라든지에서도 醫學圖書館協議會와 같은 部會를 조직하고 活動한다면 醫學關係에 뜻지 않은 共同利益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도서관도 醫學圖書館協議會의 活動狀況을 본 받아 기타 部會를組織해야 할 것이고, 또 圖協도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三. 地區協議會 活動狀況 분석

1. 地區協議會의 特征

部會와는 달리 地區協議會는 모든 館種을 통합한 協議體라는 점이다. 다시 말한다면, 地區別 또는 地域別 圖書館協會나 바를 바 없다.

그러므로 部會의 單一性格에 비하여 複合의으로 어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실상 많은 애로를 느끼게 된다.

地區協議會는 그 目的에서 풀이되어 있는 바와 같이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고 있어서 종괄적인 면에서의 活動에 기대할 수 밖에 없으나, 우리나라의 形態으로 보면, 市, 道地區에 있어서 館種別 차이가 있어서 자연히 어느 관종에 치우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다.

2. 活動內容

전체적으로 볼 때 地區協議會의 活動은 매우 不振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 理由는 市, 道地區間에 있는 도서관 수가 매우 적다는데 있다. 수가 적은 도서관인데다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서관은 小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地區協議會가 있기는 하지만 거의가有名無實하고, 실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協議會는 한 두군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느 地區를 막론하고 館種別 도서관수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있는 관계로 地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느 地區의 協議會에서는 어느 館種은 전연 대변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도서관수가 적고, 有能한 司書의 수가 적은데다가 예산마저 없으므로 地區協議會의 活動이 不振할 수 밖에 없다. 도서관수는 폐 있으면 석도 有能한 司書의 결핍으로 活動이 부진한데가 있는가 하면, 그와는 반대로 有能한 司書는 있어도 協力하는 도서관수가 적어서 활동하지 못하는 地區도 있다.

아직도 地區協議會가 조직되지 못한 地區가 있는 것은 위에서 지적한 양쪽이 모두 결핍되는 地區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의 上記와 같은 惡條件 중에서도 희생적인 奉仕精神을 가지고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을 위하여 多大한 成果를 올리고 있는 地區가 있다는 것은 도협 발전을 위하여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全南地區에서의 學校圖書館을 위한 圖書購入費의 해결 같은 것은 地區協議會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地區協議會를 이끌어가고 있는 몇 분 有能한 指導者와 司書가 없었던 해결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며, 忠南, 全南, 庆北地區에서 행하는 司書研修會이나 등도 희생적인 活動없이는 결실을 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成果를 볼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惡條件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있다는 산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失望하지만 말고 開拓해 나아갈 勇氣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결실하게

느낀다.

어려운 제반 與件아래서 희생적으로 노력하는 司書 및 司書教師들의 労苦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施賞制度도 매우 좋은 사업이다. 초창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희생적인 정신이 투철한 司書 및 司書教師가 가장 필요하므로 그들의 土氣는 도서관 앞날과 직결된다고 할 것이다. 노력의 대價로서 정당히 받아야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 同僚들 상호간에서라도 위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밖에 圖書館報 또는 이와 유사한 블리틴의 發刊은 그 地區內의 도서관 상호간의 의견 교환, 신간 안내, 독후감 발표, 인사 통정 등 많은 새 소식은 물론 새로 발전하는 圖書館學이나 圖書館經營에 관계된 지식을 제공해 주는 좋은 안내 역할을 하는 등 地區協議會發展을 위해 매우 유익하다. 그러나 비교적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3. 앞으로의 方向

地區協議會의 바람직한 方向은 그 目的에 명시된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에 기여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와 같은 목적은 말로나 글로는 표현하기 쉬운 일 이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部會와는 性格이 다르기 때문이다.

○ 圖書館 캠페인

地區協議會의 性格上 모든 館種을 초월한 活動이 바람직하다.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을 위한 圖書館의 使命을 그 지역사회에 널리 認識시키는 캠페인이 필요한 것이다.

도서관주간이나 독서주간을 이용한 圖書館의 중요성을 매스콤을 이용하여 일반 주민들에게 널리 인식 시키도록 한다든지, 圖書館大會 같은 것을 유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住民의 도서관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던지, 또는 地方에서의 여러 가지 文化行事에 도서관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함으로써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도서관의 중요성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도서관發展이 늦어지고 있다. 公共도서관 발전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국민들의 관심도가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능한 많은 기회에 매스콤이나 文化行事를 통하여 도서관을 P.R하는 동시에 도서관에서도 市民의 눈을 끌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행사를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

○ 重點的인 事業

그 地區에서의 두드러진 문제점을 重點的으로 解決도록 全力量을 集中하여야 한다.

어느 地區나 그 地區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으며,

그 地區에서의 綜合된 努力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集中的으로 總力を 기우려 해결토록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에서도 引用하였으나, 이러한 集中的인 노력의 좋은 본보기로는 全南地區에서의 學校圖書館 圖書購入費 문제 해결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가 국가적인 레벨에서 해결되었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으나 우리의 현실로서 그것은 어려우므로 地方別로라도 해결하는 길밖에 없다. 全南에서의 예는 다른 地區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 施賞制度

部會欄에서도 言及하였으나 여기서도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역시 施賞制度이다. 너무 지나치게 賞이 많아도 賞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겠지만, 그 地域社會의 文化向上에 공이 큰 도서관이나 司書에게 施賞함으로써 土氣를 북돋아주고 나아가서 더욱 더 희생적인 奉仕활동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은 필요하다.

이러한 賞을 그 地方에서 행하는 行事를 계기로하여 道知事나 教育監을 통하여 수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들에게도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된다.

○ 司書研修 세미나

그 地區의 各級도서관에 근무하는 司書들의 자질향상을 위한研修 세미나는 매우 바람직한 사업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研修세미나 개최에는 講師 초빙문제가 따른다. 유능하고 우수한 강사 초빙이 이 세미나의 成功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다. 만일 成功하지 못할 경우는 오히려 실망만을 주게된다.

맺는 말

部會나 地區協議會나를 막론하고 지금의 우리 처지로서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를 움직여 나아갈려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한다.

部會와 協議會를 이끌어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開拓者的인 정신에서의 활동만이 요구된다. 各部나 地區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활동이 있기만 기대하는 바이다.

圖書館協會에 대한 국가에서의 補助金마저 금년도에는 中斷되었다. 더욱 더 우리 살림은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各部會나 地區協議會에서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질 것이다. 도서관 운영비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때일수록 嘉인한 精神力이 요구된다.

일선에서의 활동에 敬意를 표하며 앞으로의 끊임없는 활약을 기대하는 바이다.